



## \* 등급정보 (계란) \*

▷ 24개 업체에서 생산한 4천386만6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실시결과, 1등급은 91.1%, 1등급은 7.2%, 2등급은 0.6%, 3등급은 1.2%를 차지. 전월대비 1천220만2천개(38.5%) 증가, 전년동기(21개 업체, 3천727만개)대비 659만6천개(17.7%) 증가, 금월누계는 1억737만5천개로 전년동기 누계대비 1천751만7천개(19.5%) 증가

계란 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천개, %)

중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10년 1~3월	107,375	97,899	91.2	6,935	6.5	1,009	0.9	1,532	1.4
'10년 2월	31,664	28,342	89.5	2,435	7.7	508	1.6	380	1.2
<b>'10년 3월</b>	<b>43,866</b>	<b>39,944</b>	<b>91.1</b>	<b>3,153</b>	<b>7.2</b>	<b>257</b>	<b>0.6</b>	<b>512</b>	<b>1.2</b>
왕란	249	212	85.4	34	13.8	2	0.8	-	-
특란	33,730	31,216	92.5	2,511	7.4	3	-	-	-
대란	9,888	8,516	86.1	608	6.2	252	2.5	512	5.2
중란	-	-	-	-	-	-	-	-	-
소란	-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 채란농가

####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안' 수정요구

채란농가들이 식용란 포장 및 표시 의무화 규정 가운데 '계란표면에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아예 해당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는 농가에서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국내 현실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임을 지적하며 시행이 가능한 여건 조성이 먼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제화 시대 발맞춰 예방차원의 대책을 마련한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국내 시장에서는 오염원도 제대로 판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준만 국제화해 놓은 어설픈 관리대책으로 인해 농가들만 혼란하게 될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 ↓ 비살균 액란도 미생물 기준규격 적용

세균수,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이 비살균 액란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세균수,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지난 3월 12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관련업계 현실을 고려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6월 1일부터 생산되는 알 가공품에 적용기로 했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세균수의 경우 살균제품은 1g당 1만 이하, 비살균 제품은 1g당 50만 이하여야 한다.

대장균군은 살균제품은 1g당 10 이하, 비살균 제품은 1g당 100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살모넬라균은 음성이어야 하고 보관방법은 비살균액란의 경우 할란 후 속히 5°C 이하로 냉각, 48시간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안된다. 검역원은 이번 고시개정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 등 국내외 폭넓은 의견을 거쳤다. 아울러 비살균 액란 제품의 위생관리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검토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 ↓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 서울 서초동으로 이전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호)는 지난 4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40-8번지 서광빌딩 5층으로 이전하고 적극적인 계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상호 관리위원장은 "새로운 사무실로서 이전하고 산란계자조금의 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자조금 납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